

# 해석적 언어 사용의 두 측면에서 바라본 간접인용구문의 용법

채숙희\*

|| 차례 ||

- I. 서론
- II. 해석적 언어 사용의 두 측면
- III. '발화 전달'의 상황과 간접인용구문
  - 1. 발화 행위를 전경화할 때의 용법
  - 2. 발화 내용을 전경화할 때의 용법
- IV. '반향적 발화'의 상황과 간접인용구문
  - 1. 인용구문 자체의 반향적 용법
  - 2. 의미 합성에 의한 반향적 용법
- V. 결론

## 【국문초록】

간접인용구문은 일반적으로 발화 전달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발화 전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해석적 언어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각각 '발화 전달'의 상황에서 적절성을 획득하는 경우와 '반향적 발화'의 상황에서 적절성을 획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간접인용구문의 용법을 이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한다. '발화 전달'의 상황에서 간접인용구문은 발화 행위를 전경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고 발화 내용을 전경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는데, 발화 행위의 전경화와 관련된 용법으로는 원발화자, 원청자, 그리고 발화 여부를 확인하는 용법이 있으며, 발화 내용의 전경화와 관련된 용법으로는 제3자 발화나 청자의 이전 발화에 대한 전달 및 확인, 발화 내용 전달과 관련된 명령·요청이나 제안,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화자의 과거 발화 상기 등을 들 수 있다. ‘반향적 발화’의 상황과 관련된 용법으로는 청자의 선행 발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놀람, 의심, 거부, 반발, 불만 등의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와, 화자 자신의 이전 발화를 반복하여 전달하면서 청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간접인용구문 자체가 갖는 반향적 용법은 아니지만, 상위문 동시에 양태소가 결합하거나 상위문이 수사의문문인 경우에도 반향적 용법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주제어: 인용, 해석적 언어 사용, 발화 전달, 반향적 발화, 용법, 기능, 구어

## I. 서론

인용은 일반적으로 발화를 전달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사적으로 구현하는 인용구문<sup>1)</sup>의 의미와 용법 역시 발화의 전달이 그 중심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인용구문이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인용구문은 이러한 발화 전달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용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그 의미가 발화 전달에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음을 알 수 있다.

(1) A: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B: 너 방금 학교 안 간다 그랬어? 제 정신이야?

(채숙희 2019:120)

1) 채숙희(2013:50)에서는 인용구문을 ‘인용동사가 사용된 구문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문을 보여로 취하는 구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

위의 예에서 밑줄 친 간접인용구문은 상대방의 발화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화자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불만이나 놀람을 표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발화 확인의 기능은 발화의 전달이라는 인용구문의 의미와 의문문의 확인의 기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불만이나 놀람을 표시하는 기능은 인용구문이 갖는 발화 전달이라는 기본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발화 전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이러한 이중적인 용법은 인용구문보다는 인용구문의 절단형 또는 인용구문에서 문법화한 종결어미들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었으며(이필영 1993; 전해영 1996; 박재연 1998, 2000; 이금희 2005 등), 인용구문과 관련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간접인용구문은 태생적으로 이중성을 띠는 이들 종결어미에 비해 발화의 전달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한 용법으로 널리 쓰이지만 (1)에서와 같이 화자의 태도가 더해진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는 바,<sup>2)</sup> 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발화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되는 경우와 여기에 화자의 태도를 더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sup>

Sperber & Wilson(1986/1995:224-231)의 ‘해석적 언어 사용(interpretive

- 
- 2) 본고에서는 ‘용법’을 문장 차원의 의미 기능뿐 아니라 사용 차원의 의미 기능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간접인용구문과 관련하여 발화 전달을 중심으로 한 의미 기능은 문장 차원이지만 발화 전달의 의미 기능에 더하여 표현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의미 기능은 사용 차원인데, 차원이 다른 이 의미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간접인용구문의 화용적인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피기 위함이다.
- 3)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인 강현화·황미연(2009), 김지혜(2011)에서는 인용과 관련된 표현에서 드러나는 불평, 불만과 같은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고, 인용을 불평화행과 관련하여 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인용을 단순히 발화의 전달과만 관련짓지 않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인용구문과 ‘-다며, -다면서, -다니까’ 등의 문법화한 종결어미들을 구분 없이 함께 다루고 있으며, 불평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 예들은 대부분 이러한 종결어미들이 쓰인 예이다.

use of language)’의 관점에서 ‘-다고’류 어미의 화용론적 특성을 논한 박재연(2000)에서는, ‘-다고’류 어미가 표현하는 놀람, 이의, 못마땅함, 경멸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Sperber & Wilson(1986/1995:238)의 ‘반향적 발화(echoic utterance)’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반향적 발화’는 화자가 어떤 식으로 말해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적절성을 획득하는 경우로, 청자에게 무언가가 어떻게 말해졌거나 생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해석이 적절성을 획득하는 ‘발화 전달(reported speech)’<sup>4)</sup>의 경우와는 구분된다.

‘-다고’류 어미뿐 아니라 간접인용구문 역시 발화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여기에 화자의 태도를 더하여 사용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구분은 간접인용구문과 관련해서도 유효하다. 간접인용구문이 발화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되는 경우는 ‘발화 전달’의 상황에서, 발화 전달의 의미를 유지하되 화자의 태도를 더하는 경우는 ‘반향적 발화’의 상황에서 적절성을 획득하는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석적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의 구분을 적용하여 간접인용구문의 용법을 ‘발화 전달’의 상황과 관련된 것과 ‘반향적 발화’의 상황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화의 전달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용법뿐 아니라 그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이들의 비전형적인 용법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간접인용구문의 다양한 용법들은 ‘-다고, -다면서, -다니까, -대’와 같이 ‘하다’가 형성하는 간접인용구문에서 발달해 나온 어미들이나 문법화 과정에

4) 박재연(2000)에서는 ‘reported speech’를 ‘보고 발화’로 쓰고 있으나, ‘보고’는 보통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의 뜻으로 쓰이므로, 여기서는 발화를 옮기는 인용 행위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전달’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있는 형식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 II. 해석적 언어 사용의 두 측면

Sperber & Wilson(1986/1995:224-231)에서는 언어의 사용을 ‘기술적(descriptive)’ 차원(dimension)과 ‘해석적(interpretive)’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어떤 사태를 그것이 참이 되는 명제 형식으로 표상하는(represent) 것이며, 후자는 명제 형식이 있는 다른 표상을 표상하는 것이다. 해석적 언어 사용은 두 명제 형식의 유사성(resemblance)에 기반한 것으로, 한 표상이 다른 표상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발화나 생각의 전달(reported speech or thought)을 들고 있는데, 발화나 생각의 전달은 곧 넓은 의미에서의 인용에 해당한다.

(2) 가. Peter: And what did the inn-keeper say?

Mary: Je l'ai cherché partout!

나. Peter: And what did the inn-keeper say?

Mary: I looked for it everywhere.

다. Peter: And what did the inn-keeper say?

Mary: That he has looked for your wallet everywhere.

(Sperber & Wilson(1986/1995: 227-228))

위의 예에서 (2가)는 여관주인의 발화를 프랑스어 그대로 옮긴 직접인용

이지만, (2나)는 화자가 영어로 번역하여 인용한 것인데 프랑스어인 원발 화와는 다르지만 의미 구조에 유사성이 있다. 원발화가 (2가)에서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할 경우를 (2다)와 같이 간단히 인용한다 하더라도 논리적 자질이나 부분적으로 동일한 문맥 함축 등에서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해석적 언어 사용은 이와 같이 유사성에 기반하여 다른 표상의 해석으로서 어떤 표상을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sup>5)</sup>

언어가 해석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해석이 적절성을 획득하는 경우를 Sperber & Wilson(1986/1995:238)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발화 전달’의 경우는 청자에게 무언가가 어떻게 말해졌다거나 생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해석이 적절성을 획득하지만, 화자가 어떤 식으로 말해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적절성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석이 ‘반향적(echoic)’이라고 할 수 있다.

(3) Peter: The Joneses aren't coming to the party.

Mary: They aren't coming, hum. If that's true, we might invite the Smiths.

(Sperber & Wilson 1986/1995:238)

밑줄 친 Mary의 말은 Peter가 한 말의 메아리, 즉 반향(echo)이다. 이는 Peter가 방금 한 말을 전달함으로써 적절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Mary가 Peter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신뢰성과 함축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적절성을 획득한다.

5) Sperber & Wilson(1986/1995:229)에서는 발화나 생각의 전달 외에, 다음과 같이 가정(assumption)을 표상하는 경우도 해석적 언어 사용의 예로 들고 있다.

If giraffes had wings, they would lay eggs.

박재연(2000)에서는 ‘-다고, -다면서, -다니까, -다니, -다나’ 등과 같은 ‘-다고’류 어미들의 화용론적 특성을 이와 같은 해석적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이들 어미는 공통적으로 원발화를 상징할 수 있는데, 해석적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어미가 사용된 발화는 원발화에 대한 해석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적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이들 어미를 바라보면,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과 문장유형의 불일치 문제가 설명되며,<sup>6)</sup> 놀람, 이의, 못마땅함, 경멸과 같이 원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되는 경우도 해석적 언어 사용에서 논의되는 ‘반향적’ 해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고’류 어미들과 관련된 해석적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의 설명은 간접인용구문과 관련해서도 가치를 갖는다. 간접인용구문이 사용된 발화 역시 원발화에 대한 해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화의 전달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 기반한 용법뿐 아니라 (1)에서와 같이 발화 전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용법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반향적’ 해석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접인용구문이 사용되는 발화가 적절성을 획득하는 상황을 ‘발화 전달’의 상황과 ‘반향적 발화’의 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서 간접인용구문의 쓰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예를 들어, 박재연(1998:103)의 분석에서 ‘-냐니까’가 쓰인 “철수는 학교 갔느냐니 까.”는 질문의 발화수반력을 갖지만 문장유형은 평서문이다.

### Ⅲ. ‘발화 전달’의 상황과 간접인용구문

‘발화 전달’의 상황은 청자에게 무언가가 어떻게 말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해석이 적절성을 획득하는 상황이다. 간접인용구문은 발화 전달이라는 인용구문의 기본의미에 기반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게 된다.

인용구문은 발화 행위를 표현하는 상위문과 전달되는 발화의 내용을 표현하는 피인용문으로 구성된다. 인용동사를 중심으로 한 상위문에서는 원 발화자가 주어로, 원청자가 여격어로 실현되며, 인용동사의 보어가 되는 피인용문에서는 발화의 내용이 표현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인용구문은 발화 행위를 전경화(foregrounding)할 수도 있고 발화 내용을 전경화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발화 전달’ 상황에서의 간접인용구문의 용법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상위문에 표현되는 발화 행위의 전경화와 관련된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인용문에 표현되는 발화 내용의 전경화와 관련된 용법이다.

#### 1. 발화 행위를 전경화할 때의 용법

표면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인용구문이라 하더라도 사용 맥락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는(heightened attention) 부분, 즉 전경화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4) 가. A: 누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

B: 소담이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

나. A: 소담이가 뭐라고 그랬어?

B: 소담이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



위의 (4가)와 (4나)에서 표면적으로 같은 형식의 간접인용구문이 B의 대답으로 사용되었지만, A의 질문을 고려하면 전경화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가)에서는 발화 행위가 전경화되어 ‘소담이가’에 초점이 있고, (4나)에서는 발화 내용이 전경화되어 ‘먼저 가라’에 초점이 있다.

Mushin(2001:121-122)에서는 인용과 전달증거성(reported evidentiality)의 차이에 대해 논하면서, 인용은 발화 행위와 명제적 정보(말해진 것) 모두를 전경화하지만, 전달증거성은 명제적 정보만을 전경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전달증거성은 발화 내용만 전경화하지만, 인용은 발화 행위를 전경화할 수도 있고 발화 내용을 전경화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간접인용구문에 이를 적용하면 (4가)에서는 발화 행위가, (4나)에서는 발화 내용이 전경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발화 행위를 전경화하는 경우, 간접인용구문은 원발화자, 원청자, 그리고 발화 여부에 대한 확인에 사용될 수 있다. 위의 (4가)에서는 간접인용구문이 원청자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었지만, 아래의 예들에서는 원청자의 확인과 발화 여부에 대한 확인에 간접인용구문이 사용되었다.

(5) 가. A: 소담이가 누구한테 먼저 가라고 그랬어?

B: 소담이가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랬어.

나. A: 소담이가 먼저 가라고 안 그랬어?

B: 아니, 소담이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

이와 같이 발화 행위를 전경화하는 경우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이 평서문이면 발화 행위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확인에 사용되지만,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인 경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발화 전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발화를 전달할 발화자나 발화를 전달받

을 청자를 정하거나, 발화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명령·요청이나 제안에 사용된다.

- (6) 가. A: 누가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럴래?  
B: 네가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래라.  
나. A: 누가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럴래?  
B: 우리가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러자.  
다. A: 누구한테 먼저 가라고 그럴까?  
B: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래라, 그러자}.  
라. A: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럴까?  
B: 민수한테 먼저 가라고 그러지 {마라, 말자}.

위의 각 예에서, B의 대답은 명령문 또는 청유문인데, 발화 전달 계획과 관련된 요청이나 제안을 표현하고 있다. (6가)와 (6나)에서 B의 대답은 각각 발화를 전달할 발화자에 관한 명령·요청이나 제안이라 할 수 있으며, (6다)에서 B의 대답은 발화를 전달 받을 청자에 관한 명령·요청이나 제안이라 할 수 있다. (6라)에서 B의 대답은 발화 전달 여부에 대한 명령·요청 또는 제안이다.

발화 상황과 관련된 이와 같은 용법들은 ‘발화 전달’이라는 인용구문의 의미와 진술, 질문, 명령, 제안과 같은 각 문장유형의 발화수반력에 의해 합성적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7) 평서문과 의문문도 인용동사에 ‘-겠-’이나 ‘-을 것이-’ 등이 결합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발화 전달과 관련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2. 발화 내용을 전경화할 때의 용법

인용구문에서 전달되는 발화의 내용은 피인용문에 표현되는데, 발화의 내용을 전경화하는 인용구문도 상위문의 인칭, 상위문의 문장유형, 상위문 동사인 인용동사의 시제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상위문의 인칭은 원발화자가 현재의 화자인지, 청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를 표시하는데, 이러한 원발화자와 현재의 화·청자의 관계가 기본적인 용법의 차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접인용구문을 상위문의 인칭을 중심으로 분류한 후 발화의 내용을 전경화하는 여러 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1) 상위문 주어가 3인칭인 경우

간접인용구문의 가장 원형적인 용법은 화자가 제3자의 발화를 듣고 그 내용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자는 원발화자나 원청자와 관련된 발화 행위보다는 발화된 내용, 즉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경화하는데, 이를 구현하는 인용구문은 상위문이 평서문이고, 상위문 주어가 3인칭이며, 상위문 동사인 인용동사의 시제가 과거이다.

(7) A: 소담이가 뭐라고 했어?

B: 소담이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

발화 상황보다 전달되는 발화의 내용에 중점을 둔 이러한 용법은 발화의 현장성이나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현재시제로 쓰이기도 하며, 인용동사가 ‘하다’일 때는 ‘-대, -내, -래, -재’로 축약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sup>8)</sup>

8) ‘-대’류 역시 현재시제인데, 박재연(2013:93), 채숙희(2015:85-86)에서는 이와 같

(8) A: 소담이 화 많이 났어?

B: 어제 전화했는데, 막 화내면서 다시는 나한테 얘기 안 (한다고 해, 한대).

이와 같이 상위문 주어가 3인칭이고 인용동사의 시제가 과거지만 상위문이 의문문인 인용구문은 청자가 듣거나 들은 것으로 추측되는 제3자의 발화 내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데에 쓰인다.<sup>9)</sup>

(9) 가. 민수가 먼저 가라고 했어?

나. 민수 만났어? 민수가 먼저 (가라고 해, 가래)?

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인용구문의 경우 (9가)와 같이 인용동사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상위문이 평서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9나)와 같이 인용동사가 현재시제로 쓰이거나 ‘-대’류로 축약되어 쓰일 수 있다.

## 2)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인 경우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 원발화자가 청자로, 발화 내용의 전달이나 확인 외에 발화 내용의 전달을 명령·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양상을 띤다. 먼저, 상위문이 평서문인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의 과거 발화 내용을 전달하는

---

이 과거의 ‘-됐어’류가 아니라 ‘-대’가 선호되는 것을 ‘-대’가 문법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파악하였다.

9) 명령이나 요청, 제안은 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주어는 3인칭일 수 없고, 따라서 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3인칭인 경우 상위문이 명령문이 청유문일 수는 없다.

테에 쓰인다.

(10) A: 내가 자다가 뭐라고 했는데?

B: 네가 그때 잠결에 목소리가 똑같다고 그랬어.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이면서 상위문이 의문문인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의 앞선 발화를 되풀이하는 질문이 되는데, 이를 통해 청자의 발화 내용을 확인하는 용법으로 쓰인다.<sup>10)</sup> 이때 확인의 대상이 되는 발화의 내용은 발화 전체일 수도 있고 발화의 일부일 수도 있다.

(11) 가. A: 날씨가 무척 덥네.

B: 날씨가 덥다고 했니? (이익섭·채완 1999:245 변용)

나. A: 김 사장이 어제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B: 누가 입원했다고 그랬어? (전혜영 1996:900 변용)

(11가)에서 B의 질문은 청자의 앞선 발화 전체에 관한 것이고, (11나)에서 B의 질문은 발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하려는 발화의 범위에 따라 화자는 청자의 앞선 발화를 전체를 반복하며 상위문이 의문문인 인용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위문이 의문문인 인용구문을 사용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의문사로 쓸 수도 있다.

---

10) 이러한 용법에 대해서는 인용구문보다는 인용구문의 절단형 또는 종결어미로 다루어지는 ‘-다고’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용법을 갖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질문’(한길 1991; 전혜영 1996), ‘메아리질문’(장석진 1993; 이익섭·채완 1999), ‘되받음질문’(서정수 1996/2013), ‘확인물음’(이필영 1993)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상위문이 평서문이나 의문문인 경우, 상위문의 시제가 현재가 되면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발화를 동시에 전달하거나 확인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상위문의 시제는 항상 과거시제가 된다.<sup>11)</sup>

(12) 가. A: 내가 자다가 뭐라고 했는데?

B: 내가 그때 잠결에 목소리가 똑같다고 (‘그래, 그랬어).

나. A: 날씨가 무척 덥네.

B: 날씨가 덥다고 (‘하니, 했니)?

상위문이 2인칭인 경우는 상위문이 3인칭인 경우와 달리,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인용구문이 표현하는 발화 전달의 의미와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발화수반력이 결합하여 발화 내용의 전달을 명령·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의미를 띠게 된다.

(13) 가. A: 몹을 과하게 하니까 아마 연봉을 올려줄 거야.

B: 그럴까?

A: 니가 연봉을 올려 달라고 그래.

나. A: 아무리 해도 못 단겠어.

B: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13가)에서는 발화 전달을 명령하는 데에, (13나)에서는 발화 전달을 제안하는 데에 인용구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1) 그러나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부사어가 사용될 경우, 현재에 반복되는 발화와 관련되어 상위문 시제가 현재가 될 수도 있다.

너는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런다.

너는 왜 맨날 시간 없다고 그래?

### 3)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경우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경우는 화자가 자신이 과거에 한 발화를 현재 발화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이다. 명령·요청이나 제안은 화자 자신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상위문은 일반적으로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된다. 또한 발화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발화를 전달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상위문의 시제는 현재가 될 수 없다.

먼저 인용구문의 상위문이 평서문인 경우부터 살펴보면, 청자로부터 이전 발화에 대한 확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sup>12)</sup>

(14) A: 이리 좀 와 봐요. 이게 잘 안 열리네.

B: 뭐라고?

A: 이리 좀 와 보라고 그랬어. 주스 뚜껑이 안 열린단 말이야.

(박재연 2000:182 변용)

위의 예에서 밑줄 친 인용구문의 화자인 A는 청자가 앞선 발화를 잘 듣지 못하고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자 자신의 앞선 발화를 되풀이하면서 인용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구문은 다음과 같이 단순히 자신의 발화를 다시 떠올리며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12) 이러한 용법 역시 '-다고'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었다. 이러한 '-다고'류를 문법화한 종결어미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한길 1991; 전해영 1996; 박재연 1998; 이금희 2005 등), 이필영(1993)에서는 이러한 용법의 '-다고'류를 인용구문으로 환원가능한 '환원형 절단형'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서정수(1996/2013), 김수태(2005), 채숙희(2019) 등에서도 인용구문의 일부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15) 대신 엄마한테 그랬었거든. 근까 군대 갔다 와서는 내가 다 한다구.  
아르바이트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구 그랬는  
데. 아무리 아르바이트해두 안 되드라, 진짜.

위의 예에서는 청자의 확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 발화를 전달하여 진술하는 데에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인용구문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용구문은 강의 담화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 한송화(2018:56)에 의하면 강의 담화에서는 담화 전개에 효율성을 목적으로 강의자가 자신의 발화를 확인하기 위해 인용구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즉,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확인함으로써 청자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다음 담화로 청자를 이끌어 가는 데에 인용구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 (16) 우리가 기술하는 통계가 바로 기술통계이고, 자, 아까, 제가 상관관계  
를 보겠다구 했어요. (한송화 2018:56)

한편, 인용구문의 상위문이 의문문인 경우는 평서문인 경우에 비해 잘 쓰이지 않지만, 자신의 발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청자에게 묻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 (17) A: 내일 모임에 올 거지?  
B: 내가 간다고 그랬니?  
A: 응, 어제 온다고 그랬잖아.



#### IV. ‘반향적 발화’의 상황과 간접인용구문

‘발화 전달’의 상황에서는 청자에게 무언가가 어떻게 말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해석이 적절성을 획득하지만, ‘반향적 발화’의 상황에서는 화자가 말해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해석이 적절성을 획득한다. 간접인용구문은 이와 같은 ‘반향적 발화’의 상황에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반향적’ 용법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인용구문 자체의 반향적 용법

간접인용구문이 그 자체로 갖는 반향적 용법은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의 경우와,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평서문의 경우에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만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데,<sup>13)</sup> 세부적으로는 상위문의 인칭과 문장유형에 따라 의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 1)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의 경우

간접인용구문의 반향적 용법으로는 먼저 인용구문이 발화 전달과 관련된 의미 외에 놀람, 의심, 거부, 반발, 불만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용법은 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이고 의문문인 경우에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용구문보다는 종결형

13) ‘-다며, -다면서, -다니까’와 같은 문법화된 형식들을 주로 다루기는 했지만 강현화·황미연(2008), 김지혜(2011)에서도 인용표현을 불평화행과 관련지어 다룬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 다루는 불평화행은 의미적으로 놀람, 의심, 거부, 반발, 못마땅함 등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다고’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용법인데, 다음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고’류뿐만 아니라 간접인용구문도 이러한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18) 가. A: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B: 너 방금 학교 안 간다 그랬어? 제 정신이야?

(채숙희 2019:120)

나. A: 이 가방 나한테 백만 원에 살래?

B: 백만 원에 사라고 했어? 오만 원도 안 돼 보이는데?

(이금희 2014:77 변용)

(18가)에서 밑줄 친 인용구문은 단순히 청자에게 발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면 놀람이나 불만과 같은 감정의 표현에 가깝다. (18나)에서 밑줄 친 인용구문에서는 놀람과 함께 의심이나 거부, 반발의 의미가 표현된다.

3.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이고 의문문인 경우 화자가 청자의 앞선 발화를 되풀이하는 질문을 하면서 전달된 발화 내용을 확인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인용구문은 발화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놀람, 의심, 거부, 반발, 불만과 같은 의미를 더하여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반향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종결형 ‘-다고’류를 다룬 연구들 가운데는 ‘-다고’류를 문법화한 종결어미로 보는 연구들도 있는데,<sup>14)</sup> 이 중 일부는 놀람이나 의심 등의 의미를

14) 한길(1991), 전해영(1996), 박재연(1998), 이금희(2005), 이익섭(2005), 이금희(2014), 명정희(2017) 등에서는 종결형 ‘-다고’를 문법화한 종결어미로 파악한다. 반면에, 이필영(1993), 김수태(2005), 서정수(1996/2013)에서는 이를 인용구문의 일부로 파악하며 상위문 동사 ‘하다’가 절단 또는 생략되었다고 본다.

인용구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문법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다고’류가 문법화했다고 파악한다(이금희, 2005; 이익섭, 2005). 그러나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의미는 간접인용구문의 용법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종결형 ‘-다고’류를 문법화한 어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sup>15)</sup>

종결형 ‘-다면서’류 역시 원발화자가 청자인 경우 간접인용구문의 반향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놀람, 의심, 불만 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sup>16)</sup>

(19) A: 새벽 한 시가 되도록 왜 안 자니?

B: 왜 안 자느냐고?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이금희 2014:70)

그러나 ‘-다면서’류는 청자가 발화한 내용을 바로 받아서 확인 질문을 할 때에는 쓰일 수 없다는 점(이금희 2014:68)에서, 간접인용구문이 이러한 용법으로 쓰일 때와는 차이가 있다.

(20) A: 이가 아파요.

B: 뭐? 이가 [아프다고 했어, 아프다고, \*아프다면서]?

(이금희 2014:68 변용)

15) 채숙희(2019:116-119)에서는 이러한 의미 발생의 문제와 함께, 상위문 동사 및 그 논항의 존재, 급상승조 역양의 일반성 등을 들어 ‘-다고’를 문법화한 종결어미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단, 다음과 같이 원발화자가 제3자인 경우의 ‘-다고’는 그 형태가 ‘-다고’로 한정되고 상위문 동사를 상정할 수 없음을 들어 이금희(2005, 2006, 2014), 명정희(2014)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문법화한 종결어미로 보았다. 철수가 어제 제대했다고? - 네, 어제 제대했대요. (이금희 2014:77)

16) 종결형 ‘-다고’와 달리, 종결형 ‘-다면서’의 경우에는 인용구문으로의 환원이 어렵다는 사실이 자명하여 문법화 완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없다.

위의 예에서 B는 A의 발화에 대해 바로 확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이고 의문문인 간접인용구문이나 이러한 인용구문에서 상위문 동사가 생략된 형태는 쓰일 수 있으나 '-다면서'는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2)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평서문의 경우

간접인용구문이 갖는 반향적 용법의 다른 예로는 화자 자신의 이전 발화를 반복하여 전달하면서 청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은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이고 평서문인 경우에 찾아볼 수 있다.

(21) 홍여사: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감히 어디서 그런…….

차지검장: 가만 있어!

설희: 죄송합니다, 아버님. 많이 생각했고 그러구 내린 결정이에요.

홍여사: (노해서 자르며) 닥치지 못하겠네!

차지검장: 가만 있으라고 했어! <나는 전설이다> (김지혜 2011:56)

위의 예에서 밑줄 친 인용구문은 단순히 화자가 자신의 이전 발화를 전달하거나 확인시키는 기능 외에 이전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청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sup>17)</sup> 이 경우에는 3.2.1.에서 살펴본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이고 의문문인 경우와 달리 놀람, 의심, 거부, 반발과 같은 의미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상위문이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7) 김지혜(2011:56)에서는 이 예에 대해 인용이 경고나 위협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고 설명하였는데, 화자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불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용법의 경우, 상위문의 문장유형은 평서문이지만 발화수반력은 피인용문의 유형에 따라 진술, 질문, 명령, 제안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 (22) 가. A: 알았어.  
 B: 빨리 가자, 응?  
 A: 알았다고 했어.  
 나. A: 언제 다 할 거니?  
 B: …….  
 A: 언제 다 할 거냐고 했어.  
 다. A: 빨리 와.  
 B: 다리 아픈데…….  
 A: 빨리 오라고 했어.  
 라. A: 내일 다시 하자.  
 B: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A: 내일 다시 하자고 했어.

위의 예들에서 밑줄 친 인용구문의 상위문은 평서문이지만, (22가)에서는 진술, (22나)에서는 질문, (22다)에서는 명령, (22라)에서는 제안의 발화수반력을 갖는다. 화자의 선행 발화를 피인용문으로 삼아 되풀이하면서 선행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면서 인용구문 자체는 평서문이지만 선행 발화와 같은 유형의 발화수반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의미는 종결형 ‘-다고’와 ‘-다니까’의 비교에서 논의가 된 바 있다. 이필영(1993:181)에서는 ‘-다니까’에 대해 화자의 선행발화에 어긋나는 반응을 보일 때 ‘-다니까’를 써서 화자의 불만을 표시한다고 보았으며, 박재연(1998:106)에서는 ‘-다고’는 비교적 회유하는 느낌을, ‘-다니까’는 짜증스러운 느낌을 표현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금희

(2005:161)에서도 ‘-다고’에 비해 ‘-다니까’는 화자의 못마땅함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위의 간접인용구문에서 발생하는 불만의 의미는 청자가 화자의 선행발화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니까’에서 보이는 의미와 유사하다.

이러한 경우 화자는 인용구문을 통해 불만의 태도를 표현할 뿐 아니라 선행 발화의 의도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데, Güldemann(2008: 411-412)에서는 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일 때<sup>18)</sup> 발생하는 이와 같은 ‘발화수반력의 강화(illocution reinforcement)’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3) 가. I am TELLING you, don't do that again.

나. Don't do that again, I am TELLING you.

밑줄 친 부분은 영어에서 ‘평언절(comment clauses)’(Quirk et al. 1985)로 불리는 것으로, 후행절의 화행에 청자가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이를 통해 발화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Güldemann(2008:411)에 따르면 인용구문과 관련된 이러한 용법은 영어뿐 아니라 남미 언어인 Agururuna어(Larson, 1978:43-50, 54-55)와 Kwaza어(Voort, 2002:316), 아일랜드어(Wigger, 1997:990-992)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예들은 화자가 자신의 선행 발화에서 뜻한 바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구문을 사용하는 용법이 상당히 일반적인임을 잘 보여준다.

18) Güldemann(2008)에서는 인용구문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인용 지표(quote index)’를 다루고 있어, 원문에서는 ‘인용 지표의 주어가 1인칭일 때(QI has a 1st-person subject)’로 되어 있다.

## 2. 의미 합성에 의한 반향적 용법

4.1.에서는 간접인용구문이 발화 전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화자의 태도를 더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반향적 용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상위문 동사에 양태소가 결합하거나 상위문이 수사의문문인 경우에도 이러한 반향적 용법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합성적으로 발생하는 의미에 따른 것으로 간접인용구문 자체의 용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인용구문의 의미 기능 및 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여기서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양태소 부가에 의한 반향적 용법

간접인용구문에서 상위문 동사에 ‘확인’의 ‘-잖-’<sup>19)</sup>이나 ‘이미 앓’의 ‘-지’가 결합할 경우에도 발화 전달의 확인과 관련된 의미 외에 불만과 같은 화자의 태도가 함께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4.1.에서 살펴본 간접인용구문 자체의 반향적 용법과 유사하다.

우선, 상위문 동사에 확인의 의미를 갖는 ‘-잖-’이 결합하는 경우, ‘-잖-’이 갖는 비난, 힐난, 책임 추궁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손세모들 1999)에 의해 발화 전달의 확인과 관련된 의미 외에 불만이라는 화자의 태도도 함께 표현될 수 있다.

(24) 이해진, 누나가 몇 번을 말해? 서울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랬잖아.

19) 손세모들(1999)에서는 ‘-잖-’이 형태론적으로는 ‘-지 앓-’의 축약형이지만 ‘확인’의 의미를 가지며, ‘-잖-’이 사용된 문장이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며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뜻으로 쓰임을 들어 ‘-잖-’을 하나의 형태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따라 본고에서도 ‘-잖-’을 하나의 형태소로 다룬다.

위는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이고 평서문인 인용구문의 상위문 동사에 ‘-잖-’이 결합된 예인데, 화자의 앞선 발화를 반복하여 전달하면서 확인하는 동시에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4.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이고 평서문인 경우 간접인용구문 자체에서도 이러한 화자의 불만이 표현될 수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상위문 동사에 ‘-잖-’이 결합할 경우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잖-’이 결합한 간접인용구문은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경우뿐 아니라, 2인칭 또는 3인칭인 경우, 즉 청자나 제3자의 발화를 다시 전달하며 청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간접인용구문 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법으로, 이때의 불만의 의미는 ‘-잖-’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5) 가. 버스비 모자란다고 내일 꼭 준다고 그랬잖아. 지금이 몇 달째데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거니?

나. 엄마가 거기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왜 엄마 말씀은 안 듣니?

다음으로, 상위문 동사에 ‘이미 앓’의 ‘-지’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발화 전달의 확인과 관련된 의미와 더불어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만이 표현될 수 있다. ‘이미 앓’을 표현하는 ‘-지’의 경우 의문문에서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구본관 외 2015:336), 이때 화자는 청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이익섭·채완 1997:251). 이러한 전제가 인용구문의 발화 전달의 의미와 결합하면서 발화 전달을 확인하는 의미와 함께 화자의 불만도 표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청자가 이전 발화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따르지 않는다고 화자가 전제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26) 가. 풀만 먹으라고 그랬지? 왜 꽃을 뜯어먹어!

나. 아까 금방 온다고 그랬지? 근데 왜 아직이야?

다. 선생님이 친구 때리지 말라 그러셨지? 나도 이제 안 참는다.

‘-지’가 상위문이 의문문인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 동사에 결합한 위의 예들 가운데, (26가)는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이고, (26나)는 2인칭, (26다)는 3인칭인 경우이다. 이들 예에서는 발화 전달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확인의 의미 외에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만도 함께 표현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지’를 삭제한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불만의 의미는 간접인용구문 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위문이 의문문인 간접인용구문은 화자가 이전 발화 내용을 몰라서 청자에게 묻는 경우에는 쓰여도, 화자가 이전 발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불만의 태도를 더하는 경우에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26)' 가. 풀만 먹으라고 그랬어? 왜 꽃을 뜯어먹어!

나. 아까 금방 온다고 그랬어? 근데 왜 아직이야?

다. 선생님이 친구 때리지 말라 그러셨어? 나도 이제 안 참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인용구문에서 상위문 동사에 ‘-잖-’이나 ‘-지’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4.1.에서 살펴본 인용구문 자체의 반향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발화 전달의 확인과 관련된 의미 외에 불만과 같은 화자의 태도가 함께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특성은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인 경우나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평서문의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 간접인용구문의 반향적 용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상위문 주어가 2인칭이고 의문문인 간접인용구문의 경우 청자가 발화한 내용을 바로 받아서 확인 질문을 할 때 쓰이는 데 반해, 같은 조건에서 ‘-잖-’이 결합하거나 ‘-지’가 결합하면 청자의 발화 내용을 바로 받아서 확인할 때는 쓰이지 못한다.

(20)' A: 이가 아파요.

B: 뭐? 이가 아프다고 {했어?, \*했잖아., \*했지?}

이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이금희(201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종결형 ‘-다고’류와 ‘-다면서’류의 차이와 같다. 즉, ‘-잖-’이나 ‘-지’가 결합할 경우, ‘-다면서’류와 같이 이전 담화에서 이루어진 발화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쓰일 수 있어도 현재 담화 내에서 청자가 직전에 발화한 내용을 바로 받아서 확인할 때에는 쓰일 수 없는 것이다.

(19)' A: 새벽 한 시가 되도록 왜 안 자니?

B: 왜 안 자느냐고?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하라고 했잖아., 하라고 했지?}

위는 이전 담화의 발화 내용을 확인할 때 ‘-라면서’가 쓰인 예인데, ‘-잖-’이나 ‘-지’가 결합한 간접인용구문으로 바뀌 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구문의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이고 평서문인 경우는, 같은 조건에서 ‘-잖-’이나 ‘-지’가 결합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불만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머지 두 경우에 비해 부정의 의미를 갖는 ‘-잖-’이 결합한 경우가 더 강하다.

(21)' 홍여사: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감히 어디서 그런…….

차지검장: 가만 있어!

설희: 죄송합니다, 아버님. 많이 생각했고 그러구 내린 결정이에요.

홍여사: (노해서 자르며) 닥치지 못하겠니!

차지검장: 가만 있으라고 (했어!, 했지?, 했잖아!)

## 2) 수사의문문에서의 반항적 용법

수사의문문은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 또는 부정 단언으로(이익섭·채완 1997:244) 기본적으로는 명제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을 갖지만, 부차적으로 놀람, 비꼼, 반발, 불만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sup>20)</sup> 간접인용구문의 상위문이 수사의문문일 경우 발화 행위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화자의 태도가 더해져 반항적 용법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27) 가. A: 나는 어제도 야근했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

B: 누가 야근하라고 그랬어? 왜 당신이 바쁜 걸 가지고 나한테 그래?

나. 연우 모: 너 그러는 거 아냐. 니가 첫 대학 등록금 니 오빠가 내줬어. 그거 아니었음 너 대학 못 갔어.

연우: (기도 안 찬) 공금횡령으로 감방 갈 뻔 했었어. 내가 언제 회삿돈 훔쳐다 등록금 내달랬어?

〈닥터 챔프〉 (김지혜 2011:57)

20) 한길(2005)에서는 수사의문문과 같은 반어법의 1차적 기능은 명제 내용의 강조이지만, 부차적으로 청자에 대한 경양, 전제 문장이나 상황에 대한 놀라움과 의외, 청자에 대한 빈정거림이나 비꼼, 무시나 경멸, 칭찬이나 인정 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예들 가운데 밑줄 친 문장들은 인용구문의 상위문이 수사의문문인데, (27가)에서는 의문사 ‘누가’가 (27나)에서는 의문사 ‘언제’가 사용되었다. 모두 화자가 그러한 발화를 하지 않았다는 뜻을 표현하는 강한 부정의 단언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만이 표현되고 있는데 동시에 놀람이나 반발의 태도도 드러난다.<sup>21)</sup> 결과적으로 이는 발화 전달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게 되어 간접인용구문 자체가 갖는 반항적 용법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이때 상위문으로 쓰이는 수사의문문은 긍정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발화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주로 쓰이며, 부정문 형식으로 발화 행위를 긍정하는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sup>22)</sup>

(28) 가. {내가, 네가, 개가} 언제 다시 한다고 그랬어?

나. 누가 간다 그랬어?

(28)' 가. {\*내가, \*네가, \*개가} 언제 다시 한다고 안 그랬어?

나. \*누가 간다 안 그랬어?

이와 같은 인용구문의 상위문이 수사의문문일 때의 용법은 발화 전달의 의미와 함께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상위문 동사에 ‘-잖-’이나 ‘-지’가 결합한 경우의 용법과 유사하지만, 발

21) 김지혜(2011:57-58)에서는 인용 표현이 ‘누가, 왜, 언제, 무엇’과 쓰여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질책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예에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수사의문문 외에 “누가 니들한테 이러래!”와 같은 간접화행의 예도 포함되어 있다.

22) 긍정 단언으로 쓰이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겠-’의 결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 미리 준비 좀 시키지 그랬어!

B: 내가 준비하라고 안 그랬겠니?

화 내용을 전경화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행위를 전경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상위문 동사에 '-잖-'이나 '-지'가 결합한 인용구문은 발화 내용을 강조하고 청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데에 쓰이지만, 상위문이 수사의문문인 인용구문은 발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청자에 대한 불만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데에 쓰인다.

## V. 결론

간접인용구문은 일반적으로 발화 전달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발화 전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놀람이나 불만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해석적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발화 전달'의 상황과 '반향적 발화'의 상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 간접인용구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발화 전달'의 상황에서 간접인용구문의 가장 원형적인 용법은 화자가 제3자의 발화를 듣고 그 내용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용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화 행위를 표현하는 상위문과 전달되는 발화의 내용을 표현하는 피인용문으로 구성되는 인용구문의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인용구문은 발화 행위를 전경화할 수도 있고 발화 내용을 전경화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발화 전달' 상황에서의 용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발화 행위를 전경화할 때의 용법으로는 원발화자, 원청자, 그리고 발화 여부를 확인하는 용법이 있으며, 발화 내용을 전경화할 때의 용법으로는 제3자 발화나 청자의 이전 발화의 전달 및 확인, 발화 내용 전달과 관련된 명령·요청이나 제안, 화자의 과거 발화 상기 등을 들

수 있다.

발화 전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반향적 상황’에서의 용법으로는, 청자의 선행 발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놀람, 의심, 거부, 반발, 불만 등의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와, 화자 자신의 이전 발화를 반복하여 전달하면서 청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접인용구문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향적 용법은 아니지만, 상위문 동사에 양태소가 결합하거나 상위문이 수사어문문인 경우에도 반향적 용법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상위문 동사에 ‘-지’나 ‘-잖-’이 결합하여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만이 표현되는 경우나 상위문이 수사어문문일 때 놀람, 비꼼, 반발, 불만과 같은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간접인용구문이 사용되는 상황을 ‘발화 전달’의 상황과 ‘반향적 발화’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용법을 고찰함으로써, 발화의 전달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용법뿐 아니라 그간 거의 언급되지 않은 비전형적인 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간접인용구문이 단순히 발화 전달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쓰임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자료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면 본고에서 살펴본 용법들 외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용법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강현화·황미연,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제24집, 한말연구학회, 2009, pp.5-31.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2015.

김수태, 『마침법 씨끝의 융합과 그 한계』, 박이정, 2005.

김지혜,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제46집, 이중언어학회, 2011, pp.45-65.

명정희, 「종결어미 ‘-다고’류의 양태 의미: 의문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제75집, 한국어학회, 2017, pp.101-128.

박재연,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재연,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제24집, 애산학회, 2000, pp.171-194.

박재연,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제66집, 국어학회, 2013, pp.79-107.

서정수, 『국어문법』, 집문당, 1996/2013.

손세모들,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제33집, 국어학회, 1999, pp.213-240.

신용민, 「증거성의 의미·기능적 매개변수와 형태·구조적 실현 방식에 대한 연구: 증거성 기술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제59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2, pp.211-235.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금희,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제48집, 국어학회, 2006, pp.233-258.

이금희, 「확인의문법 종결어미 ‘-다면서, -다고, -다지’의 화용적 조건과 의미」, 『어문연구』제42집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pp.59-86.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999.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1993.

장석진,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1993.

- 전혜영, 「‘-다고’ 반복 질문의 화용적 기능」, 『언어』제21집 3호, 한국언어학회, 1996, pp. 889-911.
- 채숙희, 『현대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2013.
- 채숙희, 「한국어의 전달 증거성」, 『한국어 의미학』제50집, 한국 의미학회, 2015, pp.69-98.
- 채숙희, 「종결형 ‘-다고’류와 전달 증거성」, 『언어학 연구』제50집, 한국중원언어학회, 2019, pp.103-130.
- 한길, 『국어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 한송화, 「강의 담화에서의 인용의 형식과 담화적 기능」, 『언어사실과 관점』제44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8, pp.31-70.
- Chung, K-S., *Space in Tense: The Interaction of Tense, Aspect, Evidentiality and Speech Act in Korean*, Simon Fraser University Doctorial Dissertation, 2005.
- Güldemann, T., *Quotative Indexes in African Languages: A Synchronic and Diachronic Survey*,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8.
- Larson, M. L., The function of reported speech in discourse, *Publications in Linguistics and Related Fields* 59, Dallas/Arlington: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University of Texas, 1978.
- Mushin, I., *Evidentiality and Epistemological Stance*, Amsterdam: John Benjamins, 2001.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1985.
- Sperber, D. &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2nd edition), Oxford/Cambridge: Blackwell, 1986/1995.
- Voort, H., The quotative construction in Kwaza and its (de-)grammaticalisation, in Crevels, Mily et al.(eds.), *Current studies on South American languages: selected papers from the 5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mericanists in Warsaw and the Spinoza Workshop on Amerindian languages in Leiden*, 2000, pp.309-328, *Indigenous Languages of Latin America* 3, Leiden: Research School CNWS, Leiden University, 2002.
- Wigger, A., Aspekte der Redewiedergabe im gesprochenen Irischen, *Zeitschrift für celtische Philologie* 49/50, 1997, pp.965-999.



Abstract

Usages of Indirect Quotative Constructions  
in the Aspect of Interpretive Use of Language

Chae, Sook-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usages of indirect quotative constructions in the aspect of interpretive use of language. Under 'reported speech' contexts that focus on speech report, quotative constructions are used to identify the original speaker or hearer and to ascertain if the reported speech is conveyed or not. They are also used in reporting and verifying the speech of hearer or the third person, in requesting or suggesting a speech report, and in reminding the speaker's former speech. 'Echoic utterance' contexts focus on the speaker's attitude towards the hearer or reported speech as well as on the speech report. 'Echoic' type of usages includes expressing speaker's complaint while repeating the speaker's former speech and expressing the speaker's attitude such as astonishment, suspicion, rejection, opposition, and complaint while verifying the hearer's former speech. When some modals are combined with a speech verb or when quotative constructions are used in rhetorical questions, quotative constructions can also be used in echoic contexts.

Key Word : quotation, interpretive use of language, reported speech, echoic utterance, usage, function, spoken language

채숙희

소속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 sukichae@inu.ac.kr

이 논문은 2020년 01월 31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